



의정부주보

• 발행인 손희송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124위 복자

복자 윤유일 바오로

(1760-1795)



‘인박’으로도 불리던 윤유일 바오로는 1760년 경기도 여주에서 태어났다. 그는 서적을 통해 천주교 신앙을 접한 후, 교리를 배워 입교하고 가족들에게도 교리를 열심히 가르쳤다. 1789년에는 북경의 구베아 주교에게 보내는 밀사로 선발되어 상인으로 가장해 북경을 오갔다. 그는 지황 사바, 최인길 마티아와 함께 성직자를 영입하고자 꾸준히 노력하여 마침내 1794년 말 중국인 주문모 야고보 신부를 조선에 모셔오는 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윤유일과 그 일행은 체포되었다. 그들은 붙잡힌 날부터 혹독한 형벌을 받았는데, 이때 그들이 보인 인내와 결심 그리고 지혜로운 답변은 박해자들을 놀라게 하였다. 박해자들은 주 신부의 행방을 알아내려고 애썼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더는 어찌할 수 없다는 걸 알고는 윤유일 일행을 때려죽이기로 하였다. 결국 윤유일은 그날로 사정없이 매를 맞고 숨을 거두었으니, 때는 1795년 6월 28일(음력 5월 12일), 그의 나이 35세였다.

박해자들은 그들의 시신을 몰래 강에 던져버렸다고 한다.

성화_김형주 작,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5

사순 제3주일

소리 주보 ▶



입당송

시편 25(24), 15-16

제 발을 그물에서 빼내 주시리니, 제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저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외롭고 가련한 몸이옵니다.

제1독서

탈출 3, 1-8ㄱㄴ. 13-15

화답송

시편 103(102), 1-2, 3-4, 6-7, 8과 11(◎ 8ㄱ)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
-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
- 주님은 정의를 펼치시고, 억눌린 이 모두에게 공정을 베푸시네. 당신의 길을 모세에게, 당신의 업적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네. ◎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은 것처럼, 당신을 경외하는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네. ◎

제2독서

1코린 10, 1-6, 10-12

복음 환호송

마태 4, 17 참조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

복음

루카 13, 1-9

영성체송

시편 84(83), 4-5 참조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시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모세의 미디안 장인



시나이 광야

오늘 제1독서에 등장하는 미디안은 광야에서 유목하던 옛 부족입니다. 생필품을 교역으로 구해야 했기에 상업에 능했던 그들은 창세 37,25-28에도 이집트와 길앗 산지를 오가며 장사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스마엘인들의 대상 … 들은 … 향고무와 유향과 반일향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였다”(25절);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다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었다. 그들은 요셉을 … 스무 닢에 팔아넘겼다”(28절). 다만 여기에는 미디안인이 이스마엘인과 혼용되지만, 이스마엘인은 아브라함과 하가르의 후손이고(창세 16장), 미디안은 아브라함과 크투라의 후손이므로(25장) 친척 관계입니다. 더구나 둘 다 유목민이라 함께 뭉뚱그려 칭하는 경우가 있었던 듯합니다. 미디안인을 이스마엘인과 혼용한 예는 판관 8,22-24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미디안은 이집트 왕실에서 자란 모세가 히브리인 노예를 괴롭히는 이집트인을 죽이고 몸을 숨긴 피신처이기도 합니다(탈출 2,1-22). 이후 모세는 미디안의 사제 르우엘의 딸 치포라와 혼인합니다(2,15-22). 하지만 의문인 점은, 모세의 장인 이름이 탈출 3,1에는 ‘이트로’로, 판관 4,11에는 ‘호باط’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어느 이름이 맞는 것일까요?

사실 이런 엇갈림은 성경이 형성된 과정을 고려하면 크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특히 오경은 한 사람의 저작이 아니라 여러 저자가 여러 세기에 걸쳐 완성한, 역사가 긴 책입니다. 따로따로 존재하던 전승들이 바빌론 유배기(기원전 6세기)에 한데 묶이며 편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전되던 여러 전

승이 기록으로 옮겨질 때 엇갈리게 전달된 내용도 모두 보존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름은 성경에 ‘르우엘’ ‘이트로’ ‘호باط’으로 나옵니다. 이 가운데 호باط일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 민수 10,29의 “모세가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باط에게 청하였다. 그는 모세의 장인이었다.”라는 구절이 와전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르우엘은 호باط의 부친입니다. 다음 문장의 “그”도 르우엘을 가리키는 대명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관기의 저자는 이 대명사를 다르게 이해하여 판관 4,11에서 “모세의 장인 호باط”이라고 기록한 듯합니다. 민수 10,31-32에서는 모세가 호باط에게 “장인”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의역입니다. 히브리어 본문에는 2인칭 단수 대명사가 동사 안에 포함되어 나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장인은 르우엘이고, 호باط은 르우엘의 아들 곧 모세의 처남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호باط의 이미지도 이러한 해석의 설득력을 높여주는데요, 르우엘은 큰딸을 일곱이나 둔 나이 지긋한 이로 보이지만(탈출 2,16-22), 호باط은 광야 길잡이를 할 만큼 활력 있는 인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민수 10,29-32). 그렇다면 모세의 장인 이름은 르우엘과 이트로,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인간이 구전으로 전하고 필사하여 전달한 탓에 다소의 엇갈림이 발생했지만, 그래도 말씀을 원본대로 보존하려던 옛 노력은 헛되지 않아 지금의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사다

「교회헌장」 1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헌장」의 제1항의 제목은 “교회, 그리스도의 성사”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빛은…”으로 첫 문장을 시작합니다. 성 요한 23세 교황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문을 열면서 “인류의 빛이신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빛난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 말은 시메온이 아기 예수님을 받아 안고 노래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루카 2,32)와 사도 바오로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느님의 영광을 알아보는 빛”(2코린 4,6)이라는 구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공의회는 성 요한 23세 교황의 이 말씀으로 「교회헌장」을 시작합니다: “인류의 빛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 모인 이 거룩한 공의회는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모든 사람을 교회의 얼굴에서 빛나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어 주기를 간절히 염원한다”(1항). 「교회헌장」의 이 언급은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조에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빛 외에 다른 빛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 빛의 전달은 교회를 통해서, 곧 교회의 얼굴에서 이 빛이 빛나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부들은 교회가 태양 빛을 반사하여 빛을 내는 달과 같다고 말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748항 참조).

「교회헌장」 1항은 이어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신비로서의 교회’의 특징을 뜻합니다. “교회는 곧 하느님과 이루는 깊은 결합과 온 인류가 이루는 일치, 표징이며 도구” 곧 성사인 것입니다. 교회라는 도구를 통해서 인류가 하느님과 공동체를 이루고 인류 상호 간에 일치를 이

루는 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의회는 교회가 현대 세계와 대화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신앙 유산을 비롯하여 교부들의 가르침과 이전 공의회들에서 전해 받은 교회론을 바탕으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정립하고, 그것을 교회 안의 신자들에게만 아니라 ‘온 세상’에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현대 세계의 상황 속에서, 온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강조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탈리아 폴리아 주에서 열린 2024년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인공지능의 유익과 위험성에 대해 각국 정상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교회헌장」 1항의 이러한 언급은 거부되었던 「교회헌장」의 초안이 투쟁하는 교회(Chiesa militante)의 본질과 그 구성원에 집중한 것과 대비됩니다. 중세를 연상시키는 투쟁하는 교회란 현세에서 순례하는 교회를 의미하는데, 개선한 교회(천국) 및 단련하는 교회(연옥)와 구별됩니다. 이에 대해 새로운 초안을 준비한 수에벤스 추기경은 「교회헌장」에 ‘안을 향한 교회’(ecclesia ad intra)와 ‘밖을 향한 교회’(ecclesia ad extra)가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곧 교회의 직무는 세상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며, 그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성사인 이유입니다. ●

핸드폰 단식, 매우 어렵던걸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 단식하신 지 20일 남짓 되었습니다. 홀로 고요히 침묵하시며 기도하시는 뒷모습을 떠올려봅니다. 저 역시 뭐 하나 제대로 절제하며 사순 시기를 보내고 싶어졌습니다. 마음 같아선 핸드폰 사용을 줄이면 좋겠는데, 직업상 쉽지 않습니다. 은행 업무부터 물건 구매, 이메일과 문자 주고받기, 각종 영상 시청 그리고 각종 매체에 글을 써서 올리기 등 핸드폰 없이는 불편한 게 많습니다.

핸드폰만 쥐고 있으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단절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순 시기만이라도 사람 중독, 말 중독, 일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만남을 절제하며 침묵을 실천해 보지만, 핸드폰이 손안에 있는 한 온전한 단식은 어려워 보입니다. 핸드폰 속 이런저런 재미에 서너 시간이 금세 지나가 버립니다. 이럴 때 밀려드는 건 신앙인의 죄책감입니다. 그 시간이면 성체조배 1시간에 묵주기도 20단을 바칠 수 있었으니 ‘미쳤나 봐, 정말!’ 하며 자기 비난을 하게 되지요.

단식은 욕망의 단절을 의미하고, 그 단절로 우리는 하느님과 새롭게 연결됩니다. 하지만 핸드폰 사용이 과하면 세상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연결중독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묵주기도 하기 전, 휴식 삼아 핸드폰 한번 확인하려다 어~ 하는 사이 1시간이 훌쩍 지나고, ‘어머 이게 웬일이야.’ 한탄하며 부랴부랴 묵주를 듭니다. 성체조배실 가는 길에 문자 온 걸 확인하고 통화하면서 또 1시간을 그냥 보냅니다. 그러면 염치없는 마음이 되어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핸드폰 때문에

당신과의 오붓한 시간을 까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사순 시기만이라도 핸드폰 단식을 실천하며 침묵 속에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각 방에 누워서 핸드폰을 보는 식구들, 요즘 집안 풍경이랍니다. 전철을 타면 너나 할 것 없이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을 들여다봅니다. 성경을 읽을 때나 묵주기도를 바칠 때, 심지어 미사 시간에도 핸드폰을 곁에 두고 확인합니다.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건망증 때문에 핸드폰을 잃어버릴까 봐 손에 쥐고 걸었는데, 집에 오니 가방이 없어진 겁니다. 핸드폰에 신경 쓰다 가방을 잃어버린 거죠. 캄캄한 밤에 다시 나가서 찾았는데, 다행히 길에 떨어진 채로 있었습니다. 하느님은 잃어버린 줄도 모르면서,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다 잃은 듯 허망해하며 찾아 나선다는 말이 실감이 났습니다.

작은 다짐입니다. 문자나 전화 확인은 오전과 오후에 한 번씩, 전달받은 영상은 저녁기도를 마친 후에 확인하는 것으로요.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 광야에서 외롭게 단식하시는데, 저는 손안 한 뼀의 유혹 핸드폰을 챙기다 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느님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세속 잡념 거두고 오롯한 마음으로 만나 뵙는 하느님과의 사랑, 그 맛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숨어계신 하느님을 만나려면, 세상으로부터 숨어 들어가야 합니다”(십자가의 성 요한). ☸



교구 소식

청년 전례 아카데미 - 1

A차: 3/29(토) 14시~17시, 청년센터 에피파니아 (일산)

B차: 4/5(토) 14시~17시, 청년센터 에파타 (의정부)

강사 윤종식 티모테오 신부

주제 사순에서 부활로 나아가는 전례

대상 의정부교구 청년

문의 청소년사목국 카카오톡

※ A차, B차 동일한 교육입니다.

내용 ▶



지역아동사목위원회 직원 모집

모집 1명 (계약직, 추후 정규직 재임용 가능) 근무 주 5일, 40시간

업무 아동청소년(선주민, 이주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돌봄, 소속 단체 지원, 각종 행사 지원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증명서,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1부

제출 0810369khk@gmail.com

문의 010-3946-9018

※ 자세한 사항은 교구 홈페이지 참조

고3.일반 예비신학생 모임

일시 4/6(주일) 13:30

장소 교구청 경당

찬양이 있는 청년 사순 피정 - 당일

일시 3/28(금) 19:30~21:30

장소 청년센터 에파타 (의정부시 흥선로128번길 37)

주제 하느님의 은총에 손가락을 얹다

대상 청소년, 청년 (만15세~40세) - 선착순 40명

지도 이미숙 아가다 수녀, 에드윈 김 바실리오(피아노), 김선영 가브리엘(테너)

접수 3/25(화)까지 [회비 무료]

문의 청소년사목국 카카오톡

신청 ▶



기억합니다

3월 23일은故 조진섭 요셉 신부의
10주기입니다.

전신자 성경 읽기 3/23(주일)~29(토) : 요한 6,60-7,9



3/29(토) 해설 “천주교의정부교구” 채널 시청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 서명 캠페인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갔다”(마태 2,13).

관련보도 ▶



죽음의 위협을 피해 부모의 품에 안겨 이집트 피난길에 오르신 예수님처럼 우리 곁에는 전쟁과 박해,
빈곤과 폭력을 피해 자기 나라를 떠난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한국으로 이주해 온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자녀들은 이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과 똑같이 한국 문화와 한국말이 더 익숙한 우리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단식과 자선, 기도와 희생으로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사순시기에

미등록 이주민과 그 자녀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명에 동참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서명 ▶





미사 · 피정 ▶▶

성주간 한마음 다락방 피정

초기 교회공동체 모습을 재현하며
하느님 현존을 체험하는 1박2일 피정
날짜: 4/14(월)~15(화)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동
회비: 10만원 (선착순 30명 마감)

한마음 어게인 Talk톡 토크콘서트

Lectio Divina를 통한 네버엔딩 스토리
일시: 4/26(토) 10시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하늘 광장
회비: 4만원 (선착순 300명 마감)

엠마오 피정

호명산까지 걸어서 엠마오 여행 후
산 정상에서 부활특강과 함께하는 미사
일시: 4/21(월) 10시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회비: 2만원 (선착순 150명 마감)

제주 면형의집 피정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성무일도,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추차도포함성지순례: 4/12(토)~15(화),
4/27(주일)~30(수), 5/4(주일)~7(수)
생태순례: 4/2(수)~4(금)[추],
4/7(월)~9(수), 5/10(토)~12(월),
5/20(화)~22(목), 6/15(주일)~17(화)[추]
문의: 064-756-6009, 02-773-1463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험과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2025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날짜: 4/10(목)~12(토), 4/14(월)~16(수),
4/25(금)~27(주일), 5/9(금)~11(주일)
추차도포함: 4/5(토)~8(화), 4/29(화)~5/2(금),
5/17(토)~20(화)
문의: 064-796-4182, 02-773-1455

청주초정성령회관 1박2일 치유 피정

일시: 3/29(토) 14시 ~ 30(주일) 14시
회비: 2만원 (청소년 무료)
서틀버스: 조치원역 (12:20 출발), 청주 (12:40 출발)
문의: 043-213-9103, 010-5482-6744
초정성령회관

의정부교구 5지구 영성 피정

일시: 3/24(월) 13:40~16:30
장소: 화정동 성당 403호 / 강의와 안수
강사: 최용준 베르나르디노 신부 (작은형제회)
문의: 010-8917-0090

성베네딕도수도원 탐방 & 성지순례

5/24(토)~26(월): 대구17
6/14(토)~17(화): 부산11, 마산6
6/21(토)~23(월): 춘천15, 성내동
출발: 가톨릭회관 후문 (서울 명동)
8/28(목)~9/3(수): 백두산-브뤼기에르주교 고난의 길
문의: 010-3807-1784 라이시돌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하느님, 바람, 나(힐링피정): 3/28(금)~30(주일)
성경완독: 4/4(금)~12(토), 5/9(금)~17(토)
문의: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낙태 후 화해피정 - 착한목자수녀회

날짜: 4/4(금)~6(주일), 5/16(금)~18(주일) [2박3일]
장소: 성 안드레아 피정의 집(인천) / 회비 없음
문의: 010-6637-1366 변 바울라 수녀

가정선교회 4월 피정

성가정 영성 피정: 4/2(수) 박현민 신부, 이현주 회장
토요피정과 성모신심 첫토요 미사: 4/5(토) 임문철 신부
치유·회복을 위한 찬양 피정: 4/26(토) 하성용 신부
찬양: 고영민 부회장, 손현희 팀장
시간: 12:30~16:50 / 장소: 가톨릭회관 1,3층 강당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수도 전통에 따른 레시오 디비나 입문 피정

날짜: 5/8(목)~11(주일)
장소: 성 베네딕도 문화영성센터 (왜관수도원내)
지도: 허성준 신부 외
회비: 38만원 (1인 1실)
문의: 010-8599-3127(한 름타)

혼인 성소 찾기 피정

지도: 최영민 베드로 신부 (예수회)
문의: 다음카페 oh oh my half, 010-3173-2665

의정부교구 성령쇄신 금요밤 기도회

일시: 3/28(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대성전
주제: 악에서 구하소서
강사: 두현자 올리안나 (교구 회장)
문의: 010-2127-0032

토아올람 화요 치유 피정

일시: 매주(화) 12시~16시, 명동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강사: 3/25 이상기 회장, 4/1 이재을 신부
문의: 010-5514-4077 회장



교육 · 모집 ▶▶

생활성가와 함께하는 한마음 청소년 음악 캠프

1차: 7/23(수)~25(금), 2차: 7/25(금)~27(주일)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인원: 100명 (선착순) / 회비: 23만원 (식대 포함)
문의: 010-5399-7626 권성일 미카엘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직원 모집

모집: 영양조리반 1명 / 시설명선반 1명
근무: 월~주일 중 5일 근무, 08:30~17:30
업무: 전처리, 세정, 배식 / 수련원 내외 보수 및 청소
문의: 031-840-0018 (내선104)
※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hanmaum84.com 참고

해외가톨릭사립학교 입학 설명회

일시: 4/26(토) 15시 [예약 필수]
(현지 학교 관계자 참석)
학교입학: 초4~고2, 미국·아일랜드 6개월 이상
문의: 02-2258-8983, oakinternational.co.kr
그리스도례지교회 해외학교법인

의정부성모병원 호스피스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호스피스에 관심이 있는 봉사자
장소: 의정부성모병원 호스피스병동
문의: 031-820-7003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내
준공: 2025년 상반기 준공(예정)
접수: 인천교구청(송림동)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사본
봉안: 60년 (30년, 추가 30년 가능)
봉헌금: 400만원, 500만원
접수: 032-765-7251, haneul.caincheon.or.kr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신입생 모집

석사과정(5학기): 오르간, 합창지휘, 작곡(CCM포함)
석사학위 및 가톨릭교회 인준의 고급교회음악가 자격증
원서접수: 4/14(월)~25(금)
전형일: 5/16(금) 최양업홀
문의: 02-740-9704, songsin.catholic.ac.kr/music

성 소 모 임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 의
	예수수도회	수시 (전화상담)	수도원 (서울)	010-7485-1964
	미리내 천주성삼성직수도회	수도 성소자 꿈나무 청소년·청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010-5195-3217 성소부

미사반주 및 묵상곡을 위한 오르간교육

일시: 4/7(월~토)부터 10주

문의: 02-338-3793 아퀴나소르간연구소

성가발성 노래교실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직강

시스피나음악원: 일산(금) 11시

문의: 010-9842-8818

의정부교구청 기사사도회 모집

내용: 교구 행사 시, 교통 봉사 및 질서 유지

대상: 개인택시 운전 교우

문의: 010-2762-9575 조성환 가브리엘 회장

시스피나 일산 합창단원 모집

그레고리오 성가와 모짜르트 대관식 미사곡 연주

성가대 유경험자, 전공자 환영, 나이제한 없음

문의: 010-9842-8818 이호중 교수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고양, 서울시 순으로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

**안내 · 기타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미리 준비하는 추석연휴 순례

10/7(화)~12(주일): 필리핀 (205만원)

10/7(화)~10(금): 중국 상하이 (168만원)

10/7(화)~10(금): 홍콩, 마카오 (189만원)

문의: 02-2281-9070

성심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7/8(화): 메주고리에 성모성지 (11일)

지도: 조승균 바오로 신부

5/26(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9/18(목): 이탈리아 성체기적성지 (9일)

문의: 010-5909-5997 성심여행사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5/6(화):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 (12일, 560만원)

6/3(화): 조지아, 아르메니아 (10일, 470만원)

7/4(금): 성모님 발현성지 4개국 (12일, 560만원)

9/4(목): 발틱 3국 (9일, 460만원)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5/14(수): 일본 나가사키 운젠 (4일, 150만원)

5/19(월):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 (13일)

5/20(화): 유럽 4개국 성모님 3대 발현지 (12일)

8/9(토): 이탈리아, 알프스, 프랑스 (11일, 550만원)

9/17(수): 희망의 순례자들 회년 이탈리아 일주 (11일)

10/20(월): 시니어 산티아고 도보순례 (12일)

문의: 010-5235-3533 가톨릭회관 619호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도박, 인터넷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입원 및

외래 통원치료

진료: 월~금, 09시~17시

장소: 고양시 백석역(3호선)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라파엘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5/12(월)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45만원)

5/12(월) 산티아고 순례길과 포르투갈(13일, 479만원)

5/21(수) 회년 특선 이탈리아 (11일, 445만원)

9/16(화) 성모님발현지와 스페인북부 (12일, 535만원)

문의: 02-778-8565 라파엘 여행사

2025.03.23

2025.06.22

**제12회 삶의향기****원고 공모**

의정부교구 신자를 대상으로 신앙 체험 수기를 공모합니다.

〈희망의 순례자들〉 2025년 정기 회년을 맞이하여 하느님께서 희망의 앞길을 보여주신
여러분의 신앙 체험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식

수필, 편지글 200자 원고지 기준 7매 이내

(한글 프로그램 작성 시 A4 1장 이내, 11pt, 줄 간격 160%)

※ 성명, 세례명, 본당, 연락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이메일 gongmo@uca.or.kr

우 편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261 천주교의정부교구청 4층 홍보국

기간

3/23(주일) ~ 6/22(주일)

발표

7/20자 주보와 교구 홈페이지 ※ 수상자에게는 개별통지 합니다.

시상

최우수 (1편) 50만원

우수 (2편) 각 30만원

장려 (3편) 각 20만원

※ 참가 작품 수 및 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자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문의

031-850-1433 홍보국

성찬 제정 축성문 (Narratio institutionis et consecratio)

‘성찬 제정 축성문’은 감사기도는 물론 미사 전체의 핵심을 이룹니다. 사제는 최후의 만찬 때 그리스도께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시던 말씀과 동작을 반복함으로써 빵과 포도주를 주님의 몸과 피로 축성합니다. 그래서 사제가 다른 성사에서 교회를 대신해(in persona Ecclesiae)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과는 달리, 이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in persona Christi) 성사를 거행합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이 성찬 제정 축성문은 신약성경에 나오는 최후의 만찬 대목(마르 14,22-26; 마태 26,26-30; 루카 22,14-20; 1코린 11,23-25)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고정된 본문 없이 미사 주례자가 자율적으로 바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고정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사제가 축성된 성체와 성혈을 높이 들어 올리는 관습은 중세 후기에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사제는 신자들을 등지고 미사를 드렸기에, 제대에서 진행되는 일이 신자들에게 보이지 않았습다. 게다가 잦은 영성체를 금지하던 시기라 신자들은 눈으로라도 축성된 성체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러한 바람에 응답하여 성체를 들어 올리는 예식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13세기에는 성작(성혈)의 거양과 경배도 도입되었습니다. 성체와 성혈의 거양 때, 신자들은 눈을 들어 성체와 성혈을 바라보고, 사제가 제대 위에 내려놓고 허리 숙여 깊은 절을 하면, 함께 깊은 절로 경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는 성변화의 시점은 언제일까요?

이 점에 관해서는 동방 전례와 서방 전례의 견해가 엇갈립니다. 동방 전례에서는 성령을 청하는 ‘축성 기원’을 성변화의 시점으로 간주하고, 그래서 성령 청원 기도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반면, 서방 전례에서는 ‘성찬 제정 축성문’으로 성변화가 이뤄진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 동방 전례가 더 합리적이라고 평가하지만, 성찬 제정 축성문이 성사를 이루는 형상(forma)이라는 점에서 서방 전례도 상당히 타당성을 지닌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성변화는 감사기도 전체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굳이 시점을 말하자면, 사제가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하면서 두 손을 예물 위에 펴드는 것(축성 기원)에서부터 예수님의 성찬 제정 축성문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홍유선 임마누엘	주 임 신 부	행 주 성 당  성모몽소승천	토 요 일	17:00 토요저녁주일미사
031-974-1728	사 무 실		주 일	09:00 주일 아침 미사 11:00 교 중 미 사
031-972-8537	팩 스		평 일	11:00 월, 화, 수, 목, 금
sd.uca.or.kr/hjsd1909	홈 페 이 지		성 시 간	15:00 매월 첫 금요일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144번길 50	주 소		성모신심미사	11:00 매월 첫 토요일
			병자영성체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행주성당은 로마 성모대성당과
특별 영적 유대로 결합된
성모순례지 성당입니다.**

■ 신설 본당 지원을 위한 2차 현금

다음 주일에는 의정부 교구 신설 본당 지원을 위한 2차 현금이 있습니다.

행주성당 전대사를 위한 통상적 조건

1.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친다.
2. 행주성당에서 거행되는 거룩한 예식에 경건하게 참여한다.
3.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친다.

본당공지

■ 연령회 3월 월례회의

일 시: 3월 30일 주일 오전 11시 교중 미사 후

■ 부활 판공 성사

부활 판공 성사는 사순 기간동안 보시고 성사표를 고백소 바구니에 넣으시거나 사무실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교무금 책정 세대

세대수	책정세대	책정률
76세대	32세대	42.11%

※교무금 책정을 하고 매월 납부하여 주시면 본당 재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들의 정성 (3월 10일 - 3월 16일)

교 무 금	6건	830,000원
주 일 현 금		883,000원
해외 선교 사제 후원		547,000원

■ 감 사 헌 금

고광민	100,000원	이동준	200,000원
-----	----------	-----	----------

■ 교중 미사 주송자, 예물 봉헌 담당

03월 23일	주송자	신은석(안제라)
	최성권(야고보), 김민숙(골롬바)	
03월 30일	주송자	전옥자(수산나)
	류병운(미카엘), 김인수(미카엘라)	

전례

■ 4월 봉성체

일 시: 4월 3일 오전 11시 미사 후

■ 4월 성시간

일 시: 4월 4일 오후 3시

■ 사순 시기 십자가의 길

사순 기간동안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미사 후에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 4월 성모 신심 미사

4월 성모 신심 미사는 사순 기간 중인 관계로 봉헌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절기 토요일 저녁 미사 시간 변경

동절기 동안 토요일 저녁 5시에 봉헌하던 저녁 미사를 하절기 4월부터 9월까지 저녁 7시로 변경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변경 시작 일시: 4월 5일부터 토요일 저녁 7시

행주성당의 성역화를 위하여 후원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